

서울특별시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35
------	------

2016. 9. 1.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6.9.1)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의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농식품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농식품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교육·컨설팅·판로지원·투자지원 등의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농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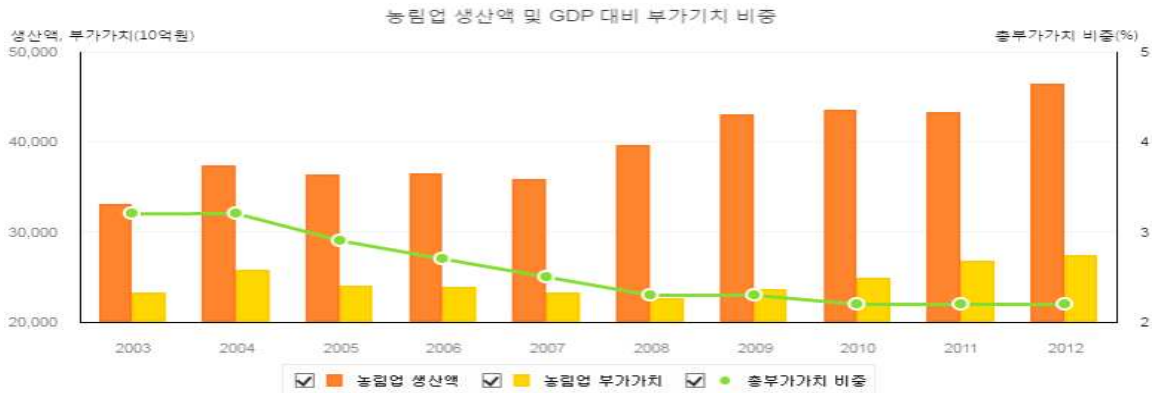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농식품 산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모델과 정보통신 기술(ICT) 등 첨단과학기술을 융·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나.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지원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 고령화와 농업기술의 부진으로 우리 농업은 생산비 투입 대비 생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국내 농식품 분야는 무역적자의 폭이 심화되고 있으며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50여개국과 FTA 체결로 국내 농업분야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농림업 생산액 및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 세계의 농식품 관련 산업의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5조 3,000억원 달러(약 5,904억원)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자동차 산업 규모(1조 6,000억달러)의 3.3배에 달하며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농식품 산업의 규모는 더욱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들은 농식품 산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농식품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함께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기존의 단순 생산과 가공중심의 농업구조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워 농식품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생물공학(BT) 등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한 시점임.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 서울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의 아이디어는 증대되고 있으나 제조기술, 인·허가, 판로개척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이하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입주기업을 선발하여 창업공간과 창업교육의 제공, 마케팅·판로지원, 스타트업 자금 유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예정임.
- 현재 지원센터는 가락몰의 테마동 건물에 위치할 계획이며 서

울시는 가락시장이 농식품 관련 주요시설과 근접하고 주변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종합식품 제조업체·농식품 무역업체 등 관련 업종이 위치하고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등을 입지적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음.

<지원센터 시설 현황>

○ 위치 :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 테마동(D, E) 3층

○ 규모 : 1,546.82㎡

구 분	활 용(안)	내 용
테마동 D·E 3층 (1,546.82㎡)	창업보육센터	기업입주 공간 (Start up)
	기업입주 공간	20여개 기업 입주
	세미나룸, 개방형 네트워크 공간	co-working, 카페, 회의실
	설비 및 행정지원실	시제품 제작실, 운영사무실, 엔젤/VC 공용실
테마B동 1층(264㎡)	전시·판매장	시제품 홍보 및 판매
업무동 13층(495㎡)	교육장	대규모 교육 및 강연 개최

※ 교육장 및 전시 판매장은 농수산식품공사와 공동 이용

-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직원 3명(기획·보육 1명, 행사·교육 1명, 행정관리 1명)으로 조직이 필요하며 연간 인건비로 1억 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음.
 - 센터장 월 500만원, 직원은 월 250만원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였음.

- 지원센터의 업무는 기존의 농식품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새로운 농식품 상품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의 직접 운영보다는 관련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기관에게 지원센터에 대한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라. 종합의견

- 지금까지 국내의 식품산업이 영세하고 원료 농산물의 이용이 낮아 농식품 산업화가 쉽지 않았으나 우리 농업의 경쟁력 증대를 위하여 농식품 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원센터를 통한 농식품산업 스타트업 육성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관련사업의 전문성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는 배경은 이해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 이후 사업운영권 회수가 사실상 곤란하고 인건비를 비롯하여 매년 상당한 위탁금이 발생하는 사정을 생각해 본다면 서울시 산하의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등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지원센터가 당초 목표한 수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목적사업이 지원센터의 운영방향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수탁기관의 인력들이 관련 분야의 충분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

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우수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한편, 서울시는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2016년에 최초로 8억원(사무관리비 4억 7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하지만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의 공사비 일부를 농수산식품공사에 부담하고(3억9천8백만원), 센터의 설계 및 리모델링공사의 발주를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추진하게 되면서 서울시는 ‘자산 및 물품관리비’ 일부(2억8백만원)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고 향후 민간위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사무관리비 등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할 계획에 있음.

<지원센터 관련 예산편성과 향후 집행예정>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민간위탁 이후 예산사용
사무관리비 4억 7,000만원 (임차료 2억원, 강사료 1억원, 컨설팅 홍보비 등 1억 7천만원)	사무관리비 2,144만원 민간위탁금 5억7,055만원 (사무관리비 4억 4856만원+자산 및 물품관리비 2억 9백만원)
자산 및 물품관리비 3억 3,000만원 [기자재 구입(제빵오븐, 조리대, 제습건조기 등 총 74종) 3억 3천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변경 2억800만원 (자산 및 물품관리비에서 변경) 공사비 부족분 3억 9,800만원 (농수산식품공사 부담)
총계 : 8억원	총계 : 11억 9,800만원

- 이처럼 당초 예산편성과 집행 간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실한 검토없이 사업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에 기인함.
- 또한 현재 서울시는 현재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후에 시설을 조성할 경우 하반기 센터 개소에 차질이 예상인 이유로 공사비를 농수산물식품공사에 교부하여 리모델링 설계에 착수하는 등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우려가 됨.
- 특히 지원센터의 수탁기관도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간의 구성과 활용 등이 서울시와 농수산물식품공사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공간이 조성되어 향후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센터 운영을 저해하거나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335
----------	------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농식품 분야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스타트업 발굴·육성으로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 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풍부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
- 소재지 :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몰1·2관 3층)
- 시설규모 : 1,546m²
- 공간구성 : 개별·개방형 보육공간, 회의실, 휴게공간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신규위탁)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2016.10. ~ 2019.9.)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지원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입주기업 선발 및 보육(우수기업 선발, 창업 교육, 컨설팅, 멘토링, 투자지원, 유통망 연계 등)
 - 데모 데이, 이용자 네트워킹, 자문단 구성·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
 - 관리 인력 선발,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 소요예산 : 800,000천원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육성계획(도시농업과-8734 , '16.6.)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본 사업은 농식품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화하여 농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직영할 경우 행정 조직의 확대가 불가피하며, 전문성 부족으로 스타트업 육성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네트워킹을 활성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6조 제6호(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제1항 5호
 -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시민과 상호 협력하여 도시농업인·도시농업공동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 및 도시농업관련 산업 육성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6년 예산확보

※ 작성자 :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정책팀 정윤희 (☎ 2133- 5434)